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10월 1일 (제918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D-1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쌓은 사람들의 이름이 낱알이 기록되어 있다.

나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이 깊다. 나도 교회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성도들의 명단을 받아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들을 기억해주시고, 축복해달라고.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성회를 위해 물티슈를 들고 나가 홍보한 자들, 물질을 드린 자들, 지방에서부터 성도들을 모시고 오느라 애쓴 자들, 단을 쌓는 일에 동참한 자들... 모두가 하나님께 기억된 자들이다.

그러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방관자를 비롯해 휘방자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에서도 그렇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자도 있고, 무슨 말을 해도 복지부동(伏地不動)인 귀족 같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말 저 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교란시키고, 일을 방해하는 산발랴와 도비야 같은 자들도 있다. 그들 역시 하나님께 기억된다.

나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께 기억되었으면 한다. 다윗이 요압장군을 마음에 두었는데, 그것은 좋고 아름다운 기억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가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요압을 처단할 것을 명한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이 될까 생각하자.

이제 내일이다. 우리 마지막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자. 분명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보상하실 것이다. 사람의 눈에만 들어도 승진하는 세상인데 하나님께 기억된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끝으로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일에 동참해준 모든 분들께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린다.

내일, 오후 3시 서울시청광장에서 만납시다!

가자, 서울시청광장으로~!!

이제 하루 남았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이다.

단상과 무대 및 스크린을 설치하고, 의자를 까는 등 내일의 성회를 위해 사전준비가 시작된다.

지난 2014년 시청 기도성회 때도 우리는 주일에배를 마치고 모두가 서울시청광장으로 달려가 10m가 넘는 초대형 단상과 무대를 설치하기 위해 밤을 밝히며 높이, 높이 올랐다. 또한 지난 해 용산 전쟁기념관 기도성회 때는 쏟아지는 비도 마다않고 밤을 새워가며 준비했었다. 다른 누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했다. 아버지 일이 나의 일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임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누가 뭐라 하기도 전에 먼저 달려가 기쁨으로 헌신했다.

당시 준비하는 모습들이 찍힌 사진과 동영상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사람도 이렇게 기록하는데, 하나님이야 일러 무삼하리요. “그때 너를 보았노라!”는 말씀은 하늘의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었음을 확증하는 것 아니겠는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계22:11~12).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믿음이 무엇이던가? 구원은 따 놓은 당상이요, 하

늘나라의 열 고을, 다섯 고을의 왕권을 차지하는 것 아니던가. 말로만 목사님 집에 놀러가겠다거나 목사님과 함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을 받아 누리는 곳이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받을 수 있지만, 하늘의 왕권은 상주시는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계2:10~11).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심판하는 영광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눅22:28~30).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실로 엄청나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에 시험을 당해도 다시 일어나고, 아버지 일이라면 누



우리의 손길, 발걸음 하나하나에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이 앞당겨진다(지난 시청성회 단 설치 모습)

가 뭐라 하기도 전에 먼저 앞장서서 달려가 나의 일처럼 기쁨으로 일하는 것이다. 또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바로 오늘이다.

지금까지 전도지로, 물휴지로, 각종 홍보물로 내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진행될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성회’를 홍보하느라 수고한 노력의 마침표를 찍는 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잡는 자가 임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차지다. 우리의 손길, 발걸음 하나하나에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이 앞당겨진다는 믿음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달려가자.

서울시청광장으로~!!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10.2(월) 오후3시, 서울시청광장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렘6:8~26)

이 땅의 재앙을 우리가 막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전10:11).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취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고도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으니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예레미야는 잔인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것임을 선포하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샘이 그 물을 솟쳐냄 같이’ 계속 악을 행하며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 다. 소귀에 경 읽는 격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사 마치 포도 따는 자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포도를 다 훑어가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렘6:10).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 유월절에 집의 문설주마다 어린양의 피를 다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피를 보고 재앙이 피하여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설마 그러했어?’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런 자는 재앙이 그 집을 삼켜버렸습니다. 장독뚜껑을 닫아놓으면 아무리 비가 내려도 장독에 비가 받아지지 않습니다. 귀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외침을 받았을 때는 그들이 힘이 미약했을 때가 아닙니다. 무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최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을 때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주변 국가를 회초리로 사용하사 그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너를 무시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타락했고, 부패했습니다. 둘러보면 모델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동성연애 하는 자들이 너무 떼떽한 세상입니다. 악이 관영하여 무섭습니다. 정치인들은 사심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심지어 목회자들마저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배의 거룩함은 상실됐고, 교회마저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지 않으면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신 하나님이 이 나라도 예외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

니다. 예레미야의 경고의 음성처럼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2일 서울시청광장에 모이는 겁니다. 모여 이 나라를 대신해서 회개하러 합니다. 열 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로도 닫혔던 하늘 문을 여셨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이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이 나라가 문제요, 나팔을 불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할 시간이 남아 있을 때 회개합니다. 맞고 깨닫는 것보다 맞기 전에

깨닫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사실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요나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왕을 비롯해서 심지어 짐승까지 금식을 하며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 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장식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신이라고 섬깁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 때 모세가 납작 엎드려 뜻을 돌이켜 달라고, 맹렬한 노를 거두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사 화를 거두셨습니다(출32).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합 왕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악독한 왕인데도 하나님은 ‘너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엘리야의 경고를 듣고 굶은 베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회개한 아합에게서 뜻을 돌이키신 적이 있습니다(왕상21:29).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 위대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합시다.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를 살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생존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또 여호와 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삼상17:47).

사사기 4장과 5장에 보면 가나안 왕 아빈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 다. 그때 드보라가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사만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 던고”(삿5:8)라 고

레 합 니 다. 대적 들이 이스라엘을 공략하 려는 일촉즉발의 위 기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겐 적

을 방어하거나 공격할 무기가 변변치 않았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은 철 병거를 지닌 하솔 군을 격멸시켰는 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이적과 권능을 베풀어 이스라엘을 도우 셧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기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 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 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 다. 포탄 하나 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통일을 이뤄야 합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위력의 몇 십배 센 수소폭탄 이 이 땅에 떨어지면 다 죽습니 다. 그 때 승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리 막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여 미리 전쟁을 막아야 합니다. 블레셋이 침공하 려고 할 때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하고는 거기서 금 식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뢰를 발하사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매 그들이 이스라 엘 앞에서 패하여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 십습니 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 님이 일을 이루시고 크고 비밀된 길로 우리 를 인도하실 것입니다(렘33:3). 산헤 립으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한 히스기 야가 여호와 의 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궁 내대신 엘리아김과 서기관 섹나와 제사 장 중 어른들도 굶은 베를 입고 기도의 자리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 으시고 하나님은 위기로부터 나라를 건 졌으며, 히스기야를 모욕하던 산헤립은 비참한 종말을 고한 일이 이사야서 37장 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방패가 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 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 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 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 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시 91:9~11). 그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것 은 기도입니다. 회개기도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합시다. 내일입니다. 10월 2일 오후 3시, 서울시청광장에 우리 함께 모여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자라면 다 참석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 님이 이 나라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우리 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 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 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시54:1~2). 할렐루야!

전화 한 통화로!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국가를 위해 기도합시다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국가 안보의 위기상황이 날로 심각해져가는 상황입니다. 외신에서는 한반도의 상황을 대서특필하고,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공습에 대비한 대피훈련을 실제상황처럼 하고 있는데도 정작 우리 국민들은 위기상황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인지 안보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상황입니다.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았던 신앙의 선전 노예미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33만 5천명이 독일군에게 포위되어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앞에는 막강한 독일군 전차부대가 겹겹이 둘러서 포격을 하였고, 공중에는 전폭기들이 폭탄을 투하하고 있었으며 바다에는 잠수함들이 진을 치고 있어 아군

함정들의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 때 윈스턴 처칠 수상은 방송을 통해 온 교회와 믿지 않는 국민들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기도하였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폭풍우가 몰려와 전차들은 진흙 구덩이에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고, 전폭기들이 심한 바람으로 뜰 수 없었으며, 거친 파도로 인해 잠수함은 모두 침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영국군이 있는 곳에는 폭풍우가 멈췄고, 무사히 탈출하여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놀랍고 위대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교단들이 있는데도 지극히 작은 우리 예수중심교단에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평화통일이 될 때까지 이 일을 기쁨으로 계속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금식하고 애통하며 기도로 이 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성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이 귀한 자리에 동참하여 함께 기도함으로써 새로운 역사의 중심에 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아름다운 인생 ::

꿈이 이루어지는 곳 DMZ

지난 23일 중고등부에서는 10·2 기도성회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현재 남북한의 상황과 전쟁의 현실, 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하는지, 그리고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자 임진각과 DMZ를 다녀왔다.

그곳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6·25전쟁 참전 기념비였다. 이 참전 기념비 옆에는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또한 철망 사이사이를 뚫고 가게 가득 메운 통일의 염원을 담은 리본들과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 편지를 쓰는 평화통일기원 느린 우체통도 있었다.

도라산 전망대에서 멀리 북한 땅이 한 눈에 들어왔다. 이 전망대에서는 10분이면 가는 가까운 거리지만 분단으로 인해 갈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제3땅굴을 체험하기 전 DMZ 영상관에서 6·25와 땅굴에 관한 영상을 보는데 부모의 시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며 자지러지게 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영상의 마지막에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가 변해 꿈이 이루어지는 곳(DMZ: Dream Making Zone)이 되길 바란다는 문구와 멘트가 기억에 남는다.

제3땅굴은 아파트 25층 높이만큼 깊숙한 곳이었다. 160cm정도 되는 높이에 두 사람정도 이동할 수 있는 넓이로 이 땅굴을 통해 시간당 3만 명의 병력이 이동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땅굴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본다.

임진각을 다녀오면서 생각한 것은 반드시 평화통일이 이뤄져야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10월 2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진행되는 기도성회에 꼭 참석해야 하는 이유다.

이은성
es2563@naver.com

최선을 다하면 후회 없다



전국 교역자들이 서울 시청광장에 모여 각오를 다졌다

지난 9월 25일(월) 낮 12시, 수도권을 비롯하여 뜻있는 전국의 교역자들이 서울 시청광장에 모였다. 이곳에서 내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평화통일 기도성회’의 성공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

이시대 목사님은 이곳에 모인 전국의 교역자들을 향하여 ‘최선을 다한 자만이 후회가 없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역설하셨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의기양양했던 이스라엘 군대는 작은 아이성을 알보다가 큰 코를 다칩니다. 이것이 어제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의 핵심입니다. 해외집회도 1차 집회를 성공리에 마치고나면 꼭 2차 때는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실패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이미 우리가 성공리에 집회를 했던 곳입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바짝 달려들지 않고 ‘되

겠지’하는 생각으로 시간만 보내다가는 아이성에서 대패한 이스라엘 군대 꼴이 되고 말 겁니다. 일주일, 금방 갑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 우리는 다시 한 번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행정부, 기획실, 교육부서 등은 각 파트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리허설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광장을 채우는 것입니다. ‘서울, 인천 교회에서 하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표시나지 않겠지’ 해서도 안 됩니다. 각자 맡은 일을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한 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이제 내일이다. 모두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후회 없는 작품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한은택 전도사

:: 생명의 말씀 ::

한 무명 병사의 임무

맥아더 장군 자서전에는 우리나라를 돕게 된 자그마한 사건이 기록되어있다.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전황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에 왔다. 한강인 도교 앞에 서서 노량진에서 용산 쪽을 쌍안경으로 살피고 있었다. 인도교는 폭파되었고 강 건너편에는 이미 인민군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북은 이미 공산군에 함락된 상태, 쌍안경으로 전황을 살피던 맥아더는 무너진 인도교 앞에 군인 한명이 총을 멘 채 부동자세로 서있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그 병사에게 물었다.

“왜 끊어진 다리 앞에 서 있는가?”

병사가 대답했다. “이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맥아더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물었다. “그러면 언제까지 서있을 생각인가?”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입니다.”

전세는 위급하고, 지휘계통은 사라지고, 지휘관들은 도망가고, 적은 바로 코앞인데 그래도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는 병사의 투철한 군인정신을 목격한 맥아더 장군은 감격하여 말했다.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맥아더는 그날 미군병력의 출동명령을 내렸고, UN군 참전명령이 내려졌다. 그것이 전세를 뒤집어 놓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그의 자서전에 기록했다.

지금 북한에서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그리고 온갖 공갈협박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핵폭탄 하나만 서울에 떨어진다면 그들의 말대로 서울은 불바다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끊어진 다리 앞에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던 한 무명의 병사처럼,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예수중심교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한 무명 병사처럼 나 한사람의 힘은 심히 미약하다. 그러나 나 한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핵폭탄보다 더 큰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에게 수중심교단에 기도의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한다. 우리에게 새로운 명령이 하달되었다. 10월 2일 서울 시청광장에 모여 기도하라고! 우리 다함께 시청 앞으로 가자! 통일은 앞당겨질 것이다.

임택함 목사
cjcc1004@hanmail.net



가자! 서울시청광장으로!!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한
기도성회**

**10. 2(월) 오후3시
서울시청광장**

**주최: 예수중심교회
문의: 02.533.9191**

